

박도원 행정법 강의계획서

cafe.daum.net/down-publiclaw

“기본서를 활용한 심화학습으로 행정법의 논리와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중요판례분석과 주요사례를 통한 답안지 스킬 훈련으로
행정법 고득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강의!”

■ ■ 담 당 박 도 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행정법 전공)
- 경희입법연구회 회원
- 現) 한림법학원 5급공채 행정법 전임

■ ■ 강의일정 2023년 8/4(금) ~ 8/28(월), 총 21회 ※월~토 강의

※ 1순환 수강 전, 홈페이지 무료특강에서 [1순환 수강자를 위한 행정법 학습전략 & 답안 작성방법 특강(7/30,일)]을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 시 간 [오후 실강반] ※ 첫 날은 시험 없이 오후 1시 40분부터 강의진행

- 1) 1시간 복습시험 : 1시 ~ 2시 ※ 주 2회(1시간, 50점) 복습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 2) 강의시간 : (시험 있는 날) 2시 10분 ~ 5시 20분 / (시험 없는 날) 1시 40분 ~ 5시 10분
- ※ 오전 8:00~9:00 누적적 복습을 위한 TRS 학습법 훈련(자율)+ 답안지 상담

[익일 오전영상반] ※ 첫 날은 시험 없이 오전 8시 40분부터 강의진행

- 1) 1시간 복습시험 : 8시 ~ 9시 ※ 주 2회(1시간, 50점) 복습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 2) 강의시간 : (시험 있는 날) 9시 10분 ~ 12시 20분 / (시험 없는 날) 8시 40분 ~ 12시 10분

■ ■ 강의교재 주교재: 기본강의 행정법 총론, 각론(김유향, 2023년판, 서점구매)

부교재: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4판, 서점구매), 리딩판례 자료(제공)

■ ■ 선행학습 ▶ 5급공채 1순환 전 선행학습(필수)

예비순환을 듣지 못한 경우나 예비순환 이후 행정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경우 또는 예비순환을 들었으나 행정법 개념과 맥락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이 필수입니다. 각 동영상은 daum 카페 【박도원행정법_공법연구소】의 [유튜브 동영상] 게시판에 있습니다.

(1) 합격생이 알려주는 행시 1순환 공부방법

1순환 : <https://youtu.be/yRLI7IBEX-w>



(2) 행정법 논리&맥락을 위한 기초법개념

5급공채 행정법 입문자특강(6강) : <https://youtu.be/K2UWEbPDBvI>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초법개념 특강(5회) : 한림법학원 홈페이지 “기초법개념” 검색

(3) 행정법 사례풀이와 답안지 작성법

5급공채 행정법 답안지 쓰는 법 : <https://youtu.be/SRE7-sdmze4>



강의특징

1. 교과서의 심화학습

5급공채 1순환은 내년 2차 시험 이전에 교과서를 마지막으로 정독할 수 있는 순환입니다.

예비순환이 행정법의 기본개념을 익히는 순환이라면, 1순환은 기본개념의 심화학습을 통하여 행정법 개념의 논리적 연결성인 논리&맥락을 체화하는 순환입니다.

행정법의 논리&맥락을 모른다면 행정법은 막연하고 이해되지 않으면서 단순암기하는 고통스런 과목이 됩니다만, 개념이 명확히 잡히고 행정법의 논리&맥락이 꿰뚫어지면 마치 수학문제 풀 듯이 시원함을 느끼는 과목이 될 겁니다.

2. 행정법 판례&사례연습

5급 공채 1순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례풀이의 기본공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주관식 사례문제는 판례를 기초로 만들어지므로 1순환에서 중요판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쟁점추출과 사례포섭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또한 행정법 주관식 사례에서는 항상 참조조문이 주어지므로 조문을 분석하는 방법도 1순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년 동안 행정법을 공부하고도 주관식 사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5급 공채 1순환에서 사례풀이의 기초를 제대로 익혀야 2순환에서 기출사례문제를 학습할 수 있고, 내년 3순환에서 각종 모의고사를 풀며 사례풀이의 실력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주관식 사례문제가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모태가 되는 판례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조문과 판례의 논거를 학습하는 것은 주관식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필수적인 학습과제가 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분석, 질문의 쟁점추출훈련, 참조조문을 분석하는 법, 최종적으로 질문에 따른 사안포섭하는 훈련을 1순환에서 어느 정도 수행하느냐에 따라 내년 행정법 점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답안지 작성법 훈련

5급공채 1순환은 교과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험 답안지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순환입니다.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사례풀이의 기초를 익히는 과정에서 행정법과 멀어지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사례풀이와 답안지 작성법을 익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① 박도원행정법_공법연구소 [유튜브 강의] “5급공채 행정법 답안지 쓰는 법” 선행학습은 필수입니다. 공식화된 답안지 공식을 익혀야 1순환에서 실전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3일에 한 번 모의고사를 본 후에 최고답안에 대한 강평을 자체 동영상 제작하여 박도원 행정법_공법연구소 [5급공채 자료실] 게시판에 올립니다. 여기서 답안지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야 합니다.

4. 답안지 복습 동영상

답안지 복습 동영상은 모의고사 실시 후 다음날 채점답안지가 배부되면 상담 진행 후 그 다음날 복습 동영상이 제작되어 카페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최고답안에 대한 강평과 답안 작성시 유의점을 상세히 설명하므로 처음 답안지를 작성하는 수험생은 복습 동영상을 통해 답안지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습과제

1. 설문의 내용 분석

- 설문의 내용은 판례의 사실관계로 구성되고, 이때 사실관계의 일상용어를 법률적 용어로 치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설문에서 원고의 주장은 '상당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된다. 이때 '1개월 영업정지처분'이 강학상 '부작위 하명'에 해당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을 묻는 질문인 경우에는 이러한 하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경우에 공정력에 의해 유효하다는 것이 법률적 분석이 된다. 이때 공정력의 근거법규인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을 법적 근거로 언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앞으로 3순환까지의 학습과제가 된다.

2. 질문의 취지 분석

- 질문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질문의 취지를 읽어내는 것을 '쟁점추출훈련'이라고 한다. 행정법은 다른 법과목에 비하여 쟁점추출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평가는 쟁점추출에 실패하여 40점 이하의 과락이 대량 발생하는 행정법 시험의 결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막연하고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 질문에서 쟁점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설문내용의 법률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질문에서 출제자의 객관화된 의사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통된 언어소통이 가능하기 위해 합의된 약속이 필요하듯이, 주관식 시험에서는 쟁점을 묻는 질문과 관련하여 합의된 약속이 존재한다.
- 예를 들어 '소송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취지는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중 협의를 소의 이익을 묻는 질문형태라는 합의된 약속이 있는 것이다. 합의된 약속을 무시하는 언어소통은 단절된 일방적 소통이 되는 것처럼, 답안지에 현출된 수험생의 주관적 사고가 객관화된 질문취지에서 벗어난 경우를 통상적으로 '쟁점이탈'이라고 부른다. 나아가 쟁점 자체를 찾지 못하고 본인이 아는 쟁점만을 쓰는 경우를 '쟁점누락'이라고 부른다.

3. 참조조문 분석

- 참조조문은 설문의 일부라는 말이 있다. 설문의 내용을 읽지 않고 사례를 풀어낼 수 없듯이 참조조문의 활용 없는 주관식 답안지는 반쪽짜리 답안지가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조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답안지를 쓰는 수험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참조조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참조조문을 빠르게 체크하여 답안지에 옮길 부분을 선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훈련하는 수험과정이 미흡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참조조문을 활용하지 못하는 답안지는 고득점을 할 수 없다. 간혹 불의의 타격이 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 조문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관련조문을 해석하고 답안지에 현출하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1순환부터 그 기초훈련이 되어야 2순환 내지는 3순환까지 답안지 훈련을 통하여 참조조문을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게 된다.

4. 소결 내지는 설문의 해결 쓰는 법

- '법학의 주관식 답안지는 판례 쓰듯이 하라'는 격언이 있다. 판례는 삼단논법에 따라 조문과 종래 판례의 견해라는 대전제에 사실관계라는 소전제를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마찬가지로 답안지에도 참조조문과 판례의 결론·논거에 따라 설문의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 이러한 포섭의 3박자는 풍부한 사안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고, 포섭의 3박자를 갖춘 답안지는 채점자에게 어필하는 고득점 답안지가 된다.
- 1순환에서 완벽한 포섭은 불가능하더라도 포섭의 3박자를 갖추는 답안지를 보는 안목은 길러야 한다. 이때 판례의 원문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 판례의 포섭을 흉내내는 것이 풍부한 답안지를 쓰기 위한 첫 걸음만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제대로 걷기 위해 천 번 이상을 넘어지는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답안지 쓰기에 도전한다면 이러한 1순환의 답안지 훈련은 3순환에서 고득점 답안지로 보답하게 될 것이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 회차	날짜	강의 주제 (모의고사 일정)
■ 제 1 회	8/4(금)	오리엔테이션, 전체 행정법 개관
■ 제 2 회	8/5(토)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행정법의 법원
■ 제 3 회	8/7(월)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 제 4 회	8/8(화)	제1회 모의고사/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 제 5 회	8/9(수)	행정상 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 제 6 회	8/10(목)	행정계획, 행정행위의 개념, 제3자효 행정행위, 재량권과 판단여지, 행정행위의 법적효과의 내용
■ 제 7 회	8/11(금)	제2회 모의고사/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제 8 회	8/12(토)	행정행위의 하자과 그 효과,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단계적 행정결정
■ 제 9 회	8/14(월)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 10 회	8/15(화)	제3회 모의고사/ 행정절차법,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제 11 회	8/16(수)	행정구제법 개관, 행정소송, 소송요건 - 대상적격
■ 제 12 회	8/17(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기타 소송요건
■ 제 13 회	8/18(금)	제4회 모의고사/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 제 14 회	8/19(토)	행정소송의 심리(처분사유 추가 변경, 기타)
■ 제 15 회	8/21(월)	행정소송의 판결, 판결의 효력
■ 제 16 회	8/22(화)	제5회 모의고사/ 행정심판
■ 제 17 회	8/23(수)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제 18 회	8/24(목)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배상책임자
■ 제 19 회	8/25(금)	제6회 모의고사/ 행정상 손실보상
■ 제 20 회	8/26(토)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 제 21 회	8/28(월)	공무원법, 공물법, 경찰행정법, 공용부담법